

# 학생참여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

김 안 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의 대학을 개혁하는 일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반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최고의 학문연구와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라는 것의 성격 같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군더더기 없이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학의 개혁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확고한 지지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근거와 입지를 확립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형편에서는 ‘대학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학생의 참여’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참여를 말하는지 등이 불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학개혁에서 학생의 참여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학생의 참여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대학을 어떤 곳으로 보며, 대학에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정리된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대학이 어떤 성격의 교육기관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리한 후, 현재의 우리 대학과

같은 상황에서 대학의 개혁작업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학을 어떤 곳인가로 보는 문제는 곧 대학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의미와 위치가 무엇인가의 문제도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지금까지의 대학에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의 문제, 그리고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런 문제들 모두에 적합한 논의를 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한 듯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학문적 연구와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성격에 관해 논의한 후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서 '대학개혁'에서 학생의 참여문제에 관한 필자 나름의 견해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 ‘유니버시티’로서의 대학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의 제도는, 영미의 것이든 구라파의 것이든, 서양에서 발달한 제도를 우리 나름대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아서 크게 우리가 없을 것이다. 서양에서의 대학교육, 즉 ‘유니버시티 에듀케이션’은 중세에 들어서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마땅하다.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이 세웠던 ‘아카데미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시움’ 같은 것이 모두 오늘날의 ‘유니버시티’ 수준에서의 교육을 수행했던 교육기관이었다. 이러한 고대의 고등교육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특징적이고 근본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직업기술이나 전문인력을 기르려는 것이 이 교육의 특징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아르테스 세르빌레스’(artes servilles, 곧 servile arts)라고 불렀던,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용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려는 것이 대학이 아니라, ‘아르테스 리베랄레스’(artes liberales, 즉 liberal arts) 곧 ‘자유교과’를 가르침으로써 덕과 지성을 갖춘 교양인을 기르려는 것을 대학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이 점은 중세에 시작된 근대적인 유형의 초기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세의 대학에서 목표로 삼았던 교육은 로마인들이 ‘카팍스 유니베르시’(capax universi)라고 불렀던 인간적 특성, 곧 세계와 우주를 전체로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것이었다. 대학은, 한마디로, 세계와 그 속에서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곳이었고, 그런 인간형을 가리켜 우리는 오늘날 ‘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적 대학교육의 이상은, 따지고 보면 서구에만 고유한 것도 물론 아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적 전통에서 볼 때에도 ‘대학’의 의미는 언제나 인격의 완성과 결부되어 있었다. 나아가서, 대학 이전

까지의 모든 교육의 과정도 이 의미에서의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초·중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대학교육’(즉 ‘유니버시티 에듀케이션’)과 구분하여, ‘학교교육’(즉 ‘스쿨 에듀케이션’)이라 부를 때, 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내용과 목적은 언제나 전인적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협소한 의미에서의 기능교육, 직업교육이 그 목적하는 바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대학의 의미는 이렇게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된 전인적 특성의 육성이 대학의 과정에서 그 완성점을 맞게 된다는 데에서 찾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학개혁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 점을 환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거의 전적으로 어떤 특수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르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직업인을 기르기 위한 것인 듯이 오해될 때가 많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현재의

우리 대학교육이 대학의 본질적인 가치와 관련되는 의미의 교육을 외면해 왔다는 점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의 대학교육에서 '자유교육'이라든가 인문교양교육의 이상이 현실적으로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의식은 대학의 개혁을 논의하는 마당에서는 특별한 강조를 받아서 마땅하지라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대학교육에서 과연 어떤 점이 대학교육다운가? 대학은 거의 전적으로 좋게 말해서 사회진출의 발판이요, 나쁘게 말해서 취직준비기관이 아닌가? 대학에 기를 쓰고 입학하려고 하는 동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대학은 사회진출의 간판이요, 간판 중에서도 일류 대학의 간판이 우리의 학생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대학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가리켜 그것이 대학다운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학개혁의 방향

대학이 사회에 봉사하는 방식은 대학이 교육다운 교육을

제공할 때에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이 교육다운 교육을 수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의 교육을 수행한다는 뜻인가?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한다는 것은 언제나 오해와 왜곡의 위험이 따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 없을 수는 없을 듯하다. 위에서 대학의 특성을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둘 때, 대학의 대학다운 모습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특성을 '개인' 또는 '개별자'의 특성만으로 규정해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피교육자의 개인적인 흥미나 관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에서 피교육자의 세대와 그 이전 세대를 모두 포함하는 소위 '종족적' 관심이나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개별자'로서의 발달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간의 교섭작용을 통한 문명과 문화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대학다운 모습은 인간의 이 '종족적' 관심이 오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문명의 전수와 발전을 통

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사명감, 기성의 세대보다 '인간다운' 모습의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자리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있을 때에야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참다운 의미에서 대학이 사회에 '봉사'하는 길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고 '전인적인' 특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가와 관계없이, 어떤 '간판', 어떤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모두 한 종족의 새 세대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 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대학이 다른 모든 일—그것이 무슨 일이든지—에서 성공하더라도 이 일에서 실패한다면 대학의 '대학다운' 모습은 불가능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교육'이나 교양교육과 여타의 '직업교육', '전문교육'과의 관련을 자세히 밝혀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장황하기도 할 것이다.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모종의 사회적 적합성이나 현실적 유용성을 갖추도록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교육—이를 통상적인 의미

에서 '직업교육'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 과 그러한 사회적 적응력이나 현실적 유용성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간다운 의미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의도하는 교육, 이 양자는 적어도 개념상으로 구분되는 교육이며, 그동안 우리의 대학교육 현실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전자의 관점에 의해서만 지배되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분명한 정도만큼 우리 대학의 개혁의 방향도 함께 분명해져야 하리라 믿는다. 대학은 더 이상, 심하게 말하자면, '직업소개소' 이기를 그쳐야 하며, 대학에서 연구되고 가르쳐지는 지식과 학문도 더 이상 현실적 유용성의 추구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그동안 사회에 '끌려가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부터 나아갈 방향은 사회를 '끌고가려는' 대학교육의 의지와 활동이 두드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의 대학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을 보는 관점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대학의 '대학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대학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과시할 수 있어야 하리라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라야 대학을 보는 일반인들의 관점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대학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대학개혁'을 선도하는 목소리는 대학 내부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전반의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대학에 '가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바깥이나 안쪽이나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외적 요구의 초점이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그 자체와 산업인력의 수급구조라는 데에 맞추어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이다. 산업과 대학이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방식 아래에서는 언제나 교육적인 기준이나 고려보다는 산업경제적 고려나 기준이 대학의 변화를 주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은 결과로 실용적 목적의 인력수급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의 존재의의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실지로 산

업이나 여타의 사회적 유용성의 추구라는 목적에서 볼 때에도 인간의 인간적 특성의 개발과 전인적 인격의 완성이 라는 대학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간형을 길러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참으로 사회에 대한 대학의 '유용한' 봉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학은 외적인 분위기나 압력 때문에 끌려가는 개혁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선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요청되는 것이다.

## 대학개혁과 학생참여

우리의 대학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 또는 개혁해 가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많은 논의가 구체적인 수준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자율화와 민주화의 문제일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대학개혁에 학

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치를 통해서 대학의 관료화를 배제하고, 예산과 인사, 학사 관리에서의 자율성이 확립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대학이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활력을 되찾고 본연의 학문연구와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볼 때, 대학개혁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다른 정해진 시점에서 '완료' 되어 끝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개혁작업을 시작해서 언제 그것이 끝나면 그때부터 원래 우리가 하던 일, 곧 학문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발상이 과연 옳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개혁해야 할 일도 많고, 개혁해야 할 분야도 많겠지만, 그 일과 분야가 어떤 성격의, 무슨 종류의 일과 분야인가를 알고, 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수단은 목적에 대하여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대학개혁'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는 학문

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대학이 '개혁'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은 곧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본연의 일과 '개혁하는' 일이 별개의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전자의 일에 두손놓은 채 후자의 일을 '먼저' 달성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대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필자의 주장은 요컨대 대학개혁이라는 일의 기준은 '학문연구와 교육'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길게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 두 가지(학문을 연구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는 사실상 한 가지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점을 받아들일 때, 대학의 개혁작업은 그 '교육'의 작업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대학이 안고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생들은 그들이 거쳐가

야 할 교육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학생으로서' 대학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해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학에서의 강의와 공부에 제쳐둔 채 소위 '학내문제'를 가지고 대학시절을 가장 비직접적인 방식으로, 가장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허송하는 학생들이 가장 딱한 학생들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5·16 군사정변과 그 이후의 군사독재가 우리 정치현실에 대해서 남겨준 교훈, '수단은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군인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정치를 개혁해놓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거든, 그때부터 당신들이 다시 정치를 하시오.' 그게 어디 그렇게 되든가? ■

김안중/서울대 교육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플라톤의 교육론』 등이 있고,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론"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